

# ‘컬러운세’ 독특한 컬러로 여성고객 감성 자극

글 / 김한웅 디지털조선 컨설턴트



인터넷을 통한 점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유사한 내용의 사이트도 우후죽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운세는 많은 역술 사이트 중에서도 유명세를 잃지 않는 사이트다. 사이트의 DB가 ‘잘 맞는다’고는 하는데, 물론 역술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은 역술의 결과가 ‘족집게’ 처럼 잘 들어맞는 사이트를 원하겠지만, 맞고 틀림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운세사이트의 특성상 ‘잘 맞는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DB의 내용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느낌 같은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한다.

컬러운세의 역술 서비스는 크게 무료운세, 마이사주, 정통운세, 명품운세, 성인운세, 테마운세 등으로 구분돼 있고 운세, 사주, 토정비결, 성인역술, 로또복권운세 등 60여개의 다양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컬러운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성인역술코너라는 데, 섹스운세, 섹스궁합, 체질로 보는 체위, 성인 종합 역술 등 자극적인 문구의 메뉴로 사용자를 유혹하고 있다. 직접 점집에서 말하기는 창피하면서도 제목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매우 뛰어난 마케팅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그림이 지나치게 사실적이라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성인 취향의 성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감점요소가 되기도 한다. 대체로 점을 보는 여성의 입장은 상세한 그림보다는 그 대략적인 상황으로써 설명해 주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성인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성인사이트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1〉 컬러운세 메인 페이지

무료 사주 게시판은 공합, 부부관계, 사업운, 시험/취업운 등 8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게시판에 상담내용을 올리면 역술인(운세 카운슬러)이 무료로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는데, 일부 답변하고 유료 전화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하 계끔 하고 있다.

## 디자인과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컬러운세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원색적인 컬러를 배치함으로써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와 구분되는 디자인으로 특화시키고 있다.

주 타깃이 여성임을 인식하고 여성적인 디자인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컬러의 사용이 좋고 디자인 수준도 유사 사이트에 비해 뛰어난 편이다. 다만 배치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으로 산만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드나 편집디자인적인 일관된 배치가 필요한 디자인이라 하겠다. 특히 베너와 메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유저의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반적인 통일성 있는 개편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2〉 연도를 선택하게 만든 인터페이스



〈그림 3〉 실시간으로 차감되지 않는 포인트

유저인터페이스는 다소 불편한 편이다. 특히 가입 후에 사주 서비스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매년 생년월일시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기능은 사용자를 진지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으나 불편하다. 가입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세를 보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디폴트로 자신의 생일이 선택되고, 다른 사람의 운세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특히 연도는 1930년부터 시작하는데, 작은 스크롤바를 움직여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력방법은 아니다. 연도의 경우 키보드로 입력하면 4번 누르면 끝나는 것인데, 마우스를 이용하면 스크롤바를 여러 번 움직여야 하므로, 훨씬 많은 클릭과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되어 유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운세서비스

대부분 독자에게는 오래전 기억이 났을 테지만, 고등학교 축제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시끌벅적한 축제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인기를 끄는 몇 군데 클럽이 있다. 화학반, 생물반, 합창반 등이 인기가 있는 것이야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의외로 전산반이 끼어 있었다. 전산반의 인기 비결은 이 운세서비스에 있었는데, APPLE이나 MSX에 물린 엡스 8핀 도트프린터로 시끄럽게 인쇄되는 운세를 보며 즐거워하던 여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운세 서비스는 대체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가 컴퓨터로 찍어낸 운세는 단순히 역술인이 말하는 운세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는 인식까지 있어서, 백화점 등지에서 1,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운세를 인쇄해주는 업체마저 생기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IBM 호환 PC가 보급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운세 프로그램이 나타났고, 한국에서 운세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태동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입력된 콘텐츠를 사주팔자에 맞도록 꼬집어내면 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 운세 서비스는 그 시장 가치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운세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 운세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 도메인이야기와 유입인원 증대

컬러운세(Colorunse)라는 도메인은 쉽게 읽히지 않고 쉽게 기억나지도 않는 도메인 이름이다. 특히 '컬러'와 '운세'의 상



〈그림 4〉 네이버에 ‘운세’를 쳤을 때 나타나는 화면

관관계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컬러운세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확률도 높지 않다.

관련 타 사이트는 ‘sajusite.co.kr’ ‘운세.com’ 등 기억이 쉬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지해야 한다. 운세서비스는 포털, 뉴스사이트나 검색엔진 등과는 달리 매일 접속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연말연시나 본인에게 특별한 날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도메인을 기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도메인을 사용자의 뇌리에 각인시키지 못했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운세 웹사이트에 접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주소창에 ‘운세’를 적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검색엔진에서 ‘운세’를 찾는 경우가 있겠다.

주소창에 운세를 쳤을 때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매우 발빠르게 선점을 했어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컬러운세를 쳤을 때 이 사이트가 나오는 정도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그와 달리 검색엔진에 키워드나 상위에 랭크시키는 것은 돈



〈그림 5〉 네이버 키워드 샵

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네이버의 주소창에 ‘운세’를 쳐보자.

수많은 운세사이트가 나오고 있지만 ‘컬러운세’는 찾을 수가 없다. 페이지를 얼마나 넘겨야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검색엔진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하단 Footer 키워드 샵을 클릭해 키워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구매하면 해당 사이트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키워드를 구매할 때는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많이 입력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전 달 분석 결과를 표시해 주는데, 사용자들은 점보다는 사주를, 사주보다는 운세를 자주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매할 수 있는 위치의 가격은 위치에 따라 월 17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한데, 이런 금액은 단순히 생각하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홍보 담당자 1명 월급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면서 유입시킬 수 있는 능력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인터넷 특성 활용하는 지혜 기대

본 사이트는 인터넷의 양방향 특징을 살리지 못한 채 사용자로부터는 오로지 생년월일시만을 입력받고 그에 맞는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주/운세 프로그램과는 달리 쌍방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흔히 ‘점집’에 가면 얼굴과 목소리 태도 등을 전부 총괄해 분석해주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사주 숫자만으로 분석해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 대한 불신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다양한 커뮤니티나, 동영상 혹은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하면 화상 채팅을 이용한 서비스라든가 웹캠 혹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관상이나 족상, 손금을 보여주는 서비스 등도 가능할 것이 아닐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기분이나 안색 등 사주 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입력받도록 해 데이터의 량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어야 인터넷 운세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말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테스트를 통한 개인의 성향을 미리 DB화해놓거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점집이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비로소 독보적인 최고의 인터넷 전문 사주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